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轉先生

(역자: 정민 교수,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)



연 蓮 연꽃 蓮 꽃은 곱네. 花娟 푸른 물 잠겨 맑은 물결 씻고,濯淸漣 새벽이슬 향기 엉겨 香凝曉露 빛깔은 아침안개 부르네. 彩惹朝煙 움직이매 물고기 노님 알고 動處覺魚戲 고요할 젠 백로가 잠자기 좋네. 靜時宜驚眠 서늘함 옥술잔에 들 때 가장 좋고 最愛涼侵玉斝 술자리에 그 빛깔 비치면 더욱 곱구나. 更憐色照華筵 바람이 잎 뒤채면 기울 듯 다시 바로 서고 風翻翠蓋欹還整 비가 구슬 쏟아 부으면 부서질 듯 둥글어지네. 雨瀉明珠淬却圓

周茂叔은 〈愛蓮説〉에서 군자에 너를 견주었고 周茂叔解比於君子 李謫仙은 일찍이 그 천연스런 고운 모습 말하였었네 李謫仙曾語其天然 강물 위 비단 치마 고운 뺨 같은 꽃도 상관치 아니하고 不關江上羅裙花似頰 산봉우리 앞 옥 우물에 배와 같은 연잎도 돌아보지 않누나 遮莫峯頭玉井藕如船 내 장차 이로써 옷을 만들어 입고서 티끌세상을 떠나가서는 吾將製爲裳衣離塵去俗 홀로 푸른 물결 밝은 달빛과 더불어 함께 마음대로 노닐으리라. 獨與滄波明月恣意周旋

※이 시는 권필(權韠, 1569~1612)이 1599년에 강화도에서 지었고, 『석주집』 권8에 실려있다.

식물 기운데 가지와 잎을 아낄 만한 것이 둘이니, 소나무와 대나무요, 꽃을 아낄 만한 것이 둘이니, 매화와 국화이다. 꽃과 잎을 모 두 아낄 만한 것이 하나이니, 연꽃이 그것이다. 내가 평생 이 다섯 가지를 아껴 우연히 李白의 三五七言을 부연하여 一言에서 十言에 이르러 그쳐 다섯 편을 이루었다. 대략 그 아름다운 운치를 서술하고 아울러 스스로 가탁하였으니, 감히 형색을 묘사하여 기이한 말 을 구한 것이 아니다. 기해년 윤4월 14일에 석주 나은은 적노라.

植物之中。枝葉可愛者二。曰松。曰竹。花可愛者二。曰梅。曰菊。花葉俱可愛者一。曰蓮。余平生酷愛此五者。偶演李白三五七 言。自一言至十言而止。成五篇。略敍佳致。兼用自託。非敢描寫形色。以求奇語也。己亥閏四月十四日。石洲懶隱。志。

■ 역사기행

방랑시인 김삿갓 유적지를 찾아서

■ 향촌 권 오 창 (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)

충절의 고장 영월에는 김삿갓 난고 (蘭皐)선생의 유적지가 새롭게 조성되 어 많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사고

이 곳을 찾아가는 데는 서울에서 철 도 고속도로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약 2 보니 선생의 충격도 극에 달하고 그 곳 시간내외이면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다. 영월시내에서는 시내버스가 매시마다 김삿갓 유적지길을 운행한다.

갓면 김삿갓도로를 따라 장릉, 고씨동 굴 동강옆으로 길을 따라 김삿갓 유적 지에 닿는다. 도로 주요지점과 교량입 구에는 김삿갓로 안내판이 있으며 죽장 을 짚고 삿갓을 쓴 석상이 서 있어서 김 삿갓로의 의미를 방문객에게 어필하고 있다.

그 김삿갓은 누구인가 알아보자.

김삿갓 난고(蘭皐)선생은 안동 김씨 로서 고려 태사의 한분인 김 선평의 24 세손으로 김안근의 둘째아들로 출생하 였고 본명는 병련(炳淵)이요 자는 성심 (性深)이요 호는 난고(蘭皐)이다. 별호 는 김삿갓이다.

선생은 5세때에 선천부사(宣川府使) 였던 그의 조부 김익순(金益淳)은 홍경 래(洪景來)의 난때에 홍경래에게 투항 한 죄로 처형당하고 부친은 남해(南海) 로 귀향을 가서 조사(早死)하였다.

난고선생은 멸족연루를 피하기 위하 여 그의 조부의 종인이었던 김성수(金 聖秀)고향인 황해동 곡산(谷山)에서 은 신하며 성장하였다.

조정에서 김익순에 대한 문죄는 본인 에게 국한하기로 결정되자 선생의 형제 들은 어머니 함평 이씨에게로 돌아왔

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총으로 떳떳 하게 살 수 없었던 그의 어머니는 이천, 가평, 평창 등지를 전전하며 살다가 영 월에 정착하였다.

그런 와중에서도 그의 어머니는 자식 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지난날 사연을 철저히 감추어오면서 양반가문의 전통 은 이어지도록 힘썼다.

선생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공부하 여 과거에 응시하겠다고 결심하여 오던 중에 영월 동헌(東軒)에서 향시(鄕試) 인 백일장에 참가하여 '논정가산충절

사(論鄭嘉山忠節死) 탄김익순죄통우천 (嘆金益淳罪通于天)' 이라는 시제로 글 을 지어 장원(壯元)하였다.

향시 장원의 결과는 그의 어머니가 숨겨오던 그의 조부의 사실이 탄로나고 에서 살 수 없어 깊은 산골 영월'어둔' 으로 숨어 살았다.

그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집안에 대 영월읍에서 행정구역상으로는 김삿 한 내력을 듣게된 선생은 조상을 지탄 한 죄책감과 자기의 운명에 대한 회의 로 견디다 못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없 는 죄인이라고 하여 삿갓을 쓰고 방랑 의 길에 올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평생을 유랑 속에서 살았다.

가는 곳마다 시를 지어 남겼고 방랑 시인으로서 언문시 파자시 국한문 혼용 시 풍자시 등을 읊어 정형화 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시세계를 추구하

또한 민중의 한과 설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일세를 풍미하였다.

선생은 장수황씨(長水黃氏)와의 사 이에 두 아들을 두었으며 32세때에 사 별하고 계실로 경주 최씨를 맞아 아들 하나를 두었다고 하나 족보에는 나타나 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디.

선생은 1863년 (철종14년) 3월29일 전 남 화순에서 57세의 나이로 작고하여서 둘째아들 익균이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 리 노루목에 묘를 이장하였다고 한다.

그 후 200여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잊 혀졌던 사실을 1982년 10월17일에 선생 의 묘소와 '어둔' 주거지를 찾아 유적 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는 관계기관과 영월군민이 폭넓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

영월에서는 매년 9월말에서 10월초에 김삿갓 묘역이 있는 노루목마을에서 김 삿갓 문화제를 개최할뿐만아니라 추모 제, 김삿갓길 걷기, 추모 퍼포먼스 백일 장 등 행사가 계속되고 노루목마을 주 위에는 김삿갓 문학관, 영상관, 민속박 물관, 미술관, 조각공원, 김삿갓에 관한 글씨와 고서적자료, 김삿갓 캐릭터 등 이 전시되고 있어서 방문객의 기호에 부응하여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있

김삿갓 문학관 광장옆에는 여행객을



위한 숙소, 토속 식당, 산채시장 등이 있고 넓은 주차장과 수도 시설 세면시설 이 깨끗하게 정 비되어 있다.

주위에는 은

은하게 들려오는 김삿갓 대중가요가 나 그네의 추억을 되새겨준다.

그곳에서는 삿갓을 쓰고 죽장을 든 석상과 목상이 군데군데 서있어서 김삿 갓의 애환을 더욱 느끼게 한다.

조각공원에는 시비는 물론 동상까지 서있고 약수터와 성황당이 있으며 밤나 무 고염나무 소나무고목이 울창한데 김 삿갓묘소는 개울언덕에 묘소정화 지원 금으로 잔디가 깔린 100여평의 묘역공 간을 점하고 있다.

묘소의 상석은 꽤 넓은 자연석이고 망주석도 자연석으로 묘소 전면 양쪽에 세워져 있다.

묘소로 가는 길은 보도불럭으로 외줄 로 깔아 놓았다.

묘소 우측 언덕에는 김삿갓을 연상하 여 초가로 정자 비슷한 송판 목조건물 과 내부에는 마루가 있는데 한복입은 노인 한 분이 김삿갓 시를 먹으로 써주 고 김삿갓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는 현 대판 김삿갓이 상주하고 있다고 보면된

약수터와 상황당 사이 길에는 마대산 (고 1,062m)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개울옆길을 따라 약 3km가면 김삿갓의 지난날의 은거지가 나온다. 그 집은 초가로 복원되어 있다.

그 거주지는 풍수지리에 의한다며는 태백산줄기의 끝이고 소백산이 시작되 는 갈라지는 향으로써 유지앵소(柳枝鶯 巢)형국이라고 알려져있다. 이는 버드 나무가지에 있는 꾀꼬리집의 형국을 뜻 한다고 한다.

김삿갓유적지를 탐방하는 국내외 특 히 일본, 중국, 여행객들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유유자적하게 자연을 음미하 고 세상을 풍자한 선생의 생애를 흠모 하면서 여유와 운치를 찾아보는 뜻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. (끝)



우강 권이혁 전장관 에세이

사람(1)

생각할수록 사람이란 불가사의한 동 물이다. 내 자신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세상의 많은 분들이 사람에 대 해서 알고자 노력해왔다. 그러나 사람 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한 사 람은 거의 없다.

아마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지구촌 사람의 100만분의 1, 아니 1,000 만분의 1 정도에도 못 미칠 것이다. 다 음에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관하여 몇 가지만 소개한다.

사람은 혼자서는 못 산다 : 사람 인(人) 자는 막대기 두 개를 세운 글자이다. 서 로 의지하고 있는 형상이다. 즉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존재하는 것이지 혼자 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 로 알려주고 있다. 사람을 인간(人間) 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사 람은 시람과 시람과의 사이에 존재한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. 사람이 이 세상 에 태어난 것은 3백40만 년 전이라고 추 계하고 있지만 그때부터 사람은 무리를 지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여 살아 왔 다. 다른 사람과의 협조 없이 또는 다른 시람과 떨어져서 혼자서는 살지 못했던 것이다. 또한 사람은 다른 사람만이 아 니라 동물・식물・대자연 등의 도움을 받 으며 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.

사람은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: 울 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죽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. 즉 출생하자 마자 죽음을 향한 여행길을 떠나는 것 이다.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 한다. 부활이나 영혼 불멸 등에 관하여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.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에 관한 연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이루 어졌다. 불교에서는 삶을 고(苦)라고 규 정했고 고(苦)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 느냐에 대하여 노력해 왔다.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그 대답을 얻었지만 깨달음 에 이르는 길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.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죄 를 지고 있다고 본다. 이 죄를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음으로써 떳떳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

사람 사는 사회는 모순 덩어리이다 : 사 람의 삶을 살펴보면 모순과 부조리가 범벅이 되어 있다. 한편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고, 한편에서는 야심을 가 지라고 외친다. 한편에서는 여유작작 (餘裕綽綽)을 외치고 한편에서는 경쟁 과 도전을 주장한다. 이와 같이 상반된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환경에서 사람이 찾아나가야 할 길을 물색하는 일이 또한 쉽지 않다.

사람은 늙어간다 : 죽음으로 가는 데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. 누가 먼저 죽 음에 도달하는 지는 사람이 정할 수 없 는 일이다. 어쨌든 사람은 늙어간다. 나 의 경우 80세까지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 을 실감했는데 85세가 넘어서는 달마 다 이 시실을 느끼게 되었고 90이 가까 운 오늘날에는 날마다 그 양상을 느낀 다. 이러한 중에서도 우리들은 보람 있 는 삶을 영위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. 한편 늙으면 특히 뇌 세포 의 수가 감소하고 보충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. 뇌 세포가 매일 파괴되고 재 생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까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뇌 의 신경세포와 세포 연결하는 시냅스 (Synapse, 신경세포의 연접부)가 큰 역 할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이다. 때로는 시냅스가 뜻밖의 힘을 발휘해서 세포 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감소된 세포를 조직해서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킨다고 도 하니 든든한 면이 있기도 한 것 같다. 더욱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. 한편으 로는 사람의 유전자는 전부 사용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75세가 되었을 때 까지도 25%는 미사용되고 있다고 한다. 그래서 75세가 되어도 얼마든지 새 출발 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. 일본에서는 히노하라 시게아키(日野原 重明, 1911~)라는 100세 노인의사가 10

년 전부터, 75세 노인을 회원으로 하는 '신노인회(新老人會)'를 창립하여 맹활 약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은 세계적으 로도 확고한 지반을 내리고 있다.

사람은 만물의 영장(靈長)인 동시에 가 장 잔인한 동물이다: 영장이란 가장 뛰 어나 영묘한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하며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. 그런데 인간의 역시는 이러한 인간이 잔인하기 그지없 는 인간학살 행위를 일삼아 왔음을 잘 알려주고 있다. 사람에 대해서만 그러 한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, 자연환 경에 대하여 참으로 잔인한 행동을 거 리낌 없이 해온 것이 인간이고 보면, 어 리둥절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.

이상은 인간에 대하여 특기할 만한 것을 몇 가지 소개한 것인데, 우리들 인 간은, 그러나 인간의 길을 걸어야 한다 는 데 대하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. 나는 우리 인간들이 인간답게 삶을 헤 쳐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 칙을 강조한다.

1.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

나는 이 말은 언제나 잘 인용한다. 이 말은 원래 헤르만 헤세(Hermann Hesse, 1877-1962)가 한 말인데 나는 결 혼식 주례를 설 때는 빼놓지 많고 이 말 을 인용한다.

내용에 관하여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안다. 사랑의 대상은 사람만 이 아니다. 산천초목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애완동물은 물른 하늘을 날 아다니는 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.

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이나 불교의 자 비는 사랑을 단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예라고 하겠다. 부모사랑, 자식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사랑, 적사랑, 나라 시랑, 인류애 등 사랑은 한 없이 많다. 아가페 사랑과 자비는 이 모두를 대상 으로 하는 사랑이다.

2.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

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고 누군가에 게 신세를 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 하여는 누누이 적은 바 있다.

신세를 졌으면 진만큼 감사할 줄 알 아야 한다. 이 세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 는 사람만큼 사람같지 않은 사람은 없 다.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,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 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 운 사람에 속하는 것이다.



무냥수전 배흘림기둥 앞에 서서



청하권대욱

목련꽃 지는 날이면 선묘화 핀다는 부석사에 갈 것이다

수채화 여백, 사과 밭둑 긴 이랑 따라가면 닮은 너울 밀려오는 산수유 고운, 천왕문 지나 민들레꽃 날아가는 돌 담장 끄트머리에 햇아기 속살 닮은 봄이 살찌고 있어 동심원 그려내는 안양루 풍경소리는 봉황산 자락으로 날려보낸다

초라한 육신에도 따수운 자비의 온기가

법고울림부딪히는 무량수전, 배흘림기둥에 등판 기대면 전해올 것이기에 번뇌 한가득 내려 볼 것이다

색바랜 단청에 켜켜이 얹힌 전설 모두 여기 모아두고, 햇살도 아까운 날은 가만 눈감고 침묵하는 명상 속에 머물면 큰 바위 浮石이 극락 가는 반야용선 되어 유회의 소용독이 파도 건네줄까

먼 뒷날, 아주 먼 뒷날 시간의 빗장 닫힌 날, 해넘이 때에도 봉황 날고, 선묘화 핀다는 소식 오면 그곳까지 헤엄쳐갈 한 마리 목어 될 것이다.

권보아 자작곡으로 컴백…22일 음원공개

권보아가 정규 7집 '온리 원(Only One)'을 발표하며 전격 컴백한다.

이번 앨범은 권보아가 지난 2010년 발 표했던 정규 6집 '허리케인 비너스'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정규 앨범으로, 한층 성 장한 권보아의 음악적 감성과 다채로운 음악 색깔을 만날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됐 다.

특히 이번에 선보일 7집 타이틀곡 '온 리 원'은 권보아가 직접 작사, 작곡한 곡 으로 데뷔 이후 최초로 자작곡을 타이틀 로 활동하는 만큼 더욱 화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25일 발매된 7집은 출시에 앞서, 22일 아이튠즈를 비롯 지니, 멜론, 올레 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전곡의 음원

을 선 공개, 권보아의 새로운 음악을 기다 려온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을 전망이다.

〈스포츠조선 7. 17 이정혁 기자 인용〉



🍑 1분명연

人生은 幸福을 채워가는 것

人生에서 저절로 찾아오는 幸福은 찰나에 불과할 뿐이다. 만약 우리가 幸福한 시간 만을 소중히 여긴다면 幸福하지 않은 人生의 대부분은 그저 무의미하게 흘 러가 버릴 것이다.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살며,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 을 행복하게 만들어라. 인생에서 '행복하지 않은 시간'을 소중히 채워가는 것. 그것이 바로 幸福이다. 〈편〉